

다케타 지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규슈 오이타현에 있는 다케타시는 광활한 아소 칼데라의 동쪽, 소보산과 구주 산맥의 기슭 골짜기에 있습니다. 오이타 시내에서 분고타케타역까지 전철로 1시간 남짓 걸립니다. 이 역은 옛날에 성 아래 도시로 번성했던 다케타마치의 끝에 있습니다. 온천 지역으로 유명한 벳푸에서 다케타 지역까지는 전철로 약 1시간 반 소요됩니다.

다케타의 역사는 폐허가 된 지금의 오카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100년대 후반에 이나바 강과 오노 강 사이에 요새가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1590년대에는 영구적인 성이 지어졌습니다.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는 우뚝 솟은 돌담과 성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케타 성 아래 도시는 1590년대부터 1660년대에 걸쳐 개발되었지만, 도시의 구획은 지금도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이코지 절과 아이젠도와 같은 사적은 좁은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1635년에 세워진 국가 중요문화재인 아이젠도는 다케타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에 개업 100주년을 맞이하는 분고타케타역의 개보수 공사처럼, 다케타 지역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역 내 관광 안내소에서는 자전거 대여, 물품 보관소, 무료 Wi-Fi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어 안내도 가능합니다.